

자주통일의 길

조국광복60년, 4월혁명45주년 논집 2005

- 발행처 : 사월혁명회
- 발행일 : 2005년 4월 15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보수지배 불력’의 대동단결

김진균
(이사 / 작고)

해방 50주년에서 일 년이 지난 올해 그리고 1987년 6월과 7,8월 민주민중항쟁의 빛나는 역사가 있는 지 10년이 될 1997년의 일 년 전인 올해, 그 중에서도 8월 15일은 우리에게 깊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사건이 생겼으며 그 여파의 진통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규정한바 한국대학생총연합이 8월 15일 연세대에서 치르고자 했던 통일축전행사에 즈음하여 한총련을 ‘이적단체’ ‘김정일 전위부대’ ‘도시게릴라’ ‘폭력살인집단’이라고 표적하여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중앙일간지 언론들이 총궐기하여 이적으로 매도하고 공권력으로 하여금 그 뿌리를 뽑으라고 하고 학생들이 몰려 꼼짝없이 포위되어 있던 연세대 현장을 성지 순례처럼 답사하는 무리가 줄지었고 그곳을 찾아간 어떤 야당 총재도 ‘한총련은 해산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주장하기도 하였다. 어떤 언론의 표현대로 ‘한총련 때려잡기’ 총궐기가 진행되고 있는 96년 8월 15일 이 시기를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만 할 것인가? 나는 90년대를 80년대와 구별짓는 의미에서 역사의 새로운 순환이 시작되는 것으로 파악한 바 있었고, 소위 ‘문민정권’이라고 호명을 받으며 등장한 김 정권을 집권시기 동안 보수지배 불력의 새로운 조율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 바 있었는데 바야흐로 96년 8월 ‘한총련 때려잡기’ 총궐기로 그 조율이 완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문민’이라고 호명된 세력이 중심에 있고 그 ‘문민’정치력에 의해 가다듬어지고 순치된 극우보수세력이 선봉부대로 나서고(이 시점에서 ‘권언복합체權言複合體’가 주목된다), 적어도 박 정권 이후 세련되게 발전한 여러 종류의 국가 관료들이 제후된 힘을 발휘하고 재벌이 집결한 경제적 지배력을 뒷받침하면서 보수지배 불력을 제법 모양새가 갖추어진 형태로 재구성하고 조율해서 잠재적인 대립세력을 지배하고 압박하는 데 온 힘을 일사불란하게 과시하고 있다.

물론 지배불력을 조율해 오는데 그 내부의 대립갈등도 있었고 전·노 대통령을

법정에서 재판받게 하는 곡절도 있었다. 그렇지만 보수지배 블록은 마침내 대동단결을 과시하게 되었다.

그 동안 치밀하게 이 조율작업이 진행되었다고 본다. 이 조율작업은 잠재적 대립세력을 압박하고 배제하고 회유하는 방법과 동시에 진행되었다. 예컨대 한국사회에서 가장 대중적 민중세력인 ‘민주노동세력’이 민주노총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그 핵심인사들을 수배 구속하였고 그 지지 노동운동 단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계속 압박했다. 그리고 80년대 진보적인 학생운동의 서클이나 단체에 대해서도 비록 현재 활동하지는 않더라도 청결작업을 계속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군부과시즘 체제 때보다도 교도소에 구금된 양심수가 더 많아지기도 하였다. 가장 강력한 대립적 잠재세력인 민주노동 운동세력이 민주노총을 건설해 감에 따라 그 세력을 김 정권은 ‘노사개혁위원회’를 설치해서 노동관계법 개정 작업에 끌어들어서 마치 개혁의 동반자인 양 묶어 뭉으로써 마지막 대립적 잠재세력이라고 간주된 ‘한총련 때려잡기’에 일정한 거리를 둔 구경꾼 위치로 붙들어 두는 데 성공하였다. 이렇게 배제-억압-회유 작업이 일 년 이상 치밀하게 진행되는 동시에 문민정권의 태생적 근거지였던 군부지배세력을 길들이고 광주항쟁에 대한 피비린내 나는 탄압의 주인공 세력들을 내란 살인보다는 부정부패에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치밀한 작업도 수행하였다. 작년 내내 80년 ‘광주사태’의 진실을 두 방송국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마치 수천억대의 돈을 탈취하기 위해 정권을 찬탈한 듯한 ‘가상현실’로 뒤바꿔 놓았다. 그리고 그 주인공 몇 사람을 재판에 회부하였다. 그들에 대한 1차 공판이 끝날 무렵 그때 8.15특사에 ‘문민정권’ 개혁의 상징적 표적이었던 부정부패 분자들을 석방·사면 조치를 취하고 연례행사로 치러 온 ‘한총련’ 통일행사를 공격했던 것이다. 아마도 이 날, 군부 과시스트 자궁에서 태생되어 나온 ‘문민정권’은 80년대 일부 민주화운동에 나섰던 인사들까지 여당과 야당의 두 길로 포섭해 내면서 ‘보수지배 블록’의 대동단결을 완결하기에 이른 것이다.

중고등학교 시절 ‘국사’교과서에서조차 없애 버린 교과과정으로 공부한 대학생이 ‘북한사정’에 대해 어느 누가 잘 알려주지 않은 상황에서 ‘민족’을 생각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일 것이다. ‘세계화’가 만발하는데 그저 ‘원초적 세계인’으로 살아가면 민족문제는 없어지는 것일까. 그보다도 우선 자식들이 자라면 대학생도 되고 노동자도 되고 자본가도 될 것이다. 자라나는 과정에 껍질이 벗겨지는 아픔이 없을 수 없을 것이고 부모들은 자식 키우는 아픔 때문에 인간의 기본권, 정치적 기본권을 일깨워 주거나 직접 주장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보수지배 블록이 ‘인디펜던트-데이’를 구가한다면, 시원한 바람을 쐬고 싶은 마음과 기지개를 펴고 싶은 소위 ‘진

보적 기운'이 솟아나지 않을 것인가.

‘연세대’를 ‘도시게릴라’ 활동무대라고 견학하고 대학생들 징벌코자 으름장을 놓는 대학총장들이 있다면 기본권과 대학의 자율성을 주장하는 교수들이 있을 수 없단 말인가. 어차피 남북한 사이에 자본이 오가고 기술이 오가고 사람이 오가게 되면, 칠천만 민족이 통일을 이야기할 텐데 그때도 ‘창구’를 단일화하고만 있을 수 있겠는가. 그때는 누가 친북이며, 누가 좌경이 되어 구획되겠는가?

보수지배 블록이 조율되어 대동단결한다면 그 세력은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인가? 그 블록 안에는 이제 이승만 독재의 하수인들은 사라지겠지만, 박 정권 때의 ‘유신’을 장만한 사람도 있고, 전·노의 광주대학살을 꾸미고 작전을 수행한 사람도 있고, 민주인사를 구속 고문하고 국보법을 남용해서 기소한 검사도 있고 판결해 준 판사도 있을 것이다. ‘유신’으로 나타날 것인가, 그와 유사한 ‘이원집권제’로 나타날 것인가. 8월 하반기 신문에 간혹 집권당 정치인이 행한 ‘통일과정이 급속히 진행된다면 대통령 선거가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뜻의 발언이 보도되었다. 그 사람들에게는 대통령 선거도 없이 대통령 직위가 연속되는 어떤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그 어떤 것이든 ‘민주화’에는 역행할 것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해방 50년 우리 민족은, 국민은, 민중은, 청년학도는 ‘민주화’를 전진시켜 온 전력이 있다. 그 민족적 역량을 어찌 무시할 수 있겠는가.

우리 자식들은, 우리 대학생들은 순치된 노예가 아니지 않은가. 사회 구석구석에 스며든 민주화의 녹즙이 썩어지겠는가. 우리 위대한 민주국민은 알량한 경제적 혜택 몇 푼에 팔려나가는 그러한 사람은 아니지 않은가! 민주 민족 민중의 힘이 집결하는 전국적 수준의 운동을 줄기차게 추구하였으며 그 위대성을 충분히 체험해 오지 않았는가! 민주주의 없이 어떤 명분으로든지 역사를 후퇴시킬 수는 없지 않은가!

4월혁명이 그냥 4월혁명이었던가!

87년 민주민중항쟁이 그냥 87년이었던가!

새로운 세기가 온다면 그것은 우리 민족의 민주적 힘으로 만들어 내야 할 것이 아닌가!

사월혁명회보 제45호(1996.8)